

일본 혼묘지 소장 안남국 黎朝 通交 書翰에 대하여

김현명
국사편찬위원회

<https://doi.org/10.15017/2198498>

出版情報 : 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9, pp.19-28, 2009-03-31. Research Center for Korean Studies, Kyushu University

バージョン :

権利関係 :



일본 혼묘지 소장 안남국 黎朝 通交 書翰에 대하여

김현영 (국사편찬위원회)

머리말

일본 구마모토(熊本) 혼묘지(本妙寺) 박물관에는 安南國 黎朝의 大都統官 瑞公이 히고노구니(肥後國: 현재의 구마모토 일대) 藩主인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에게 보낸 통상 요청 문서 2점이 소장되어 있다. 혼묘지는 임진왜란 때에 도요토미가 조선을 침략하는데 선봉이 되었던 가토 기요마사의 원찰이다. 가토 가는 지배지인 비후국이 자신의 아들 대에 호소가와(細川) 가로 전봉이 되어서 지배지를 빼앗기지만, 가토 가의 원찰인 혼묘지는 轉封된 이후에도 가토 기요마사를 모시는 원찰로서의 지배적 위치를 잃지 않았다.

이 혼묘지 박물관에는 가토 기요마사를 비롯하여, 혼묘지와 관련된 유물과 문서들이 많이 남아있다. 특히 임진왜란과 관련된 유물로는 가토가 함경도까지 진출하여 포로로 잡은 임해군.순화군 관련 글씨라든가 가토의 포로가 되어 그의 신하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혼묘지의 2대 주지가 된 조선인 이치요(日遙) 상인(上人)과 관련된 문서, 임진왜란 후에 포로 쇄환과 국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사명당의 글씨 등 조선 관련 유물들도 많이 소장되어 있다.¹⁾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안남국에서 가토에게 보낸 두 점의 서한이다.

안남국에서 가토에게 보낸 두 점의 서한 가운데 하나는 1609년 5월에 보낸 것이고, 다른 하나는 1610년 5월에 보낸 것이다. 첫 번째 문서는 黎 왕조 16대 왕인 敬宗惠帝의 연호인 弘定 10년 즉 1609년 5월에 보낸 문서로 安南國 大都統官 瑞公이 일본국 肥後守 加藤清正에게 보낸 것이다. 이 문서에서 안남국의 대도통관인 서공이 일본에서 온 船主가 먼저 교역을 청하므로, 信物을 보내니 신의로서 교역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문서는 역시 같은 安南國 大都統官이 肥後守 加藤清正에게 보낸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두 권력자 사이에 오고 가며 통상을 추진하고 있는 林右라고 하는 선주의 이름이 나온다. 또한 이 선주는 원래의 항행 목적지가 暹羅國(현재의 태국)의 余慈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의 정세가 불안하여 기항을 하지 못하므로 이곳 안남에 들렀다고 하였다.

이 시기의 안남국은 黎朝이지만, 莫登庸이 1527년에 찬탈을 하여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비록 막 왕조를 물리치고 다시 後黎 王朝가 계속되었지만, 權臣인 阮王과 鄭王이 각각 남북을 점거하여 지배하는 시기였다.

1. 17세기 전반의 동아시아와 조선의 안남 인식

16세기말부터 17세기에 걸친 시기는 동아시아 전체가 격변하는 시기였다. 중국은 명에서 청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였으며, 일본은 오랜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여 수 년 간 명, 조선, 일본은 전쟁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莫 왕조에서 黎 왕조로, 여 왕조는 실권을 쥔 阮, 鄭 두 세력가들에 의하여 점거되고 있는 시기였다.

조선에서는 안남과 정식의 외교관계는 없었다. 다만 중국에 조공을 온 사신들을 통하여 접촉이 있을 뿐이

1) 혼묘지 소장 자료는 1979~80년 2년간 熊本縣立美術館에 의하여 조사정리되었다. (『本妙寺歴史資料調査報告書』, 1981년, 肥後本妙寺)

었다. 그중에서도 1597년 이수광이 중국에 사신을 갔을 때에 여조의 사신으로 온 馮克寬과의 필담은 이후 조선 지식인들의 안남 인식에 있어서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曹伸이 안남 사신과 교류한 시/조선 후기에도 연경에서 몇 차례 안남, 유구 사신과 만남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정보 교류는 없었다.)²⁾

이수광은 1597년 동지사 서장관으로 북경에 가서 안남국의 사신을 만나 시문을 주고받았으며 필담을 통하여 양국의 정세나 풍속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였다. 이수광은 먼저 안남의 국가의 강역, 풍속, 과거제도, 기후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안남국의 날씨가 따뜻하여 벼농사가 1년에 2모작을 하고 1년에 8번이나 누에를 치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안남국의 여조가 막씨에게 찬탈되었다가 復國하였으며, 막조의 마지막 왕인 莫茂治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馮克寬은 어떻게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였는가에 대해서 놀라는 표정을 짓기도 하였다.³⁾

또한 이수광이 풍극관과 수창한 한시는 풍극관이 귀국하여 국왕에게 바치고, 안남국의 국왕과 귀족들 사이에서는 귀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시를 귀감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 임란 때에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동남아와 무역하는 일본 상선을 타고 그 지역을 여행하고 포로 쇄환 때에 귀국한 趙完璧에 의하여 그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⁴⁾ 다음은 『지봉집』에 소개된 「趙完璧傳」의 일부이다.

조완벽은 진주의 선비이다. 약관에 정유왜란을 만나 일본 교토에 포로가 되었다.(趙生完璧者, 晉州士人也. 弱冠值丁酉倭變, 被擄入日本京都.) 왜인들은 목숨을 가리며 여기고 이익을 중히 여겨서 장사하는 것을 농사 짓듯이 했으며 배를 말 타듯이 하여 해외의 남번 여러 나라들에 멀어도 가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가 좀 문자를 안다고 해서 그를 배에 태워서 1604년부터 매년 세 번이나 안남국에 갔다.(倭奴輕生重利, 以商販爲農, 以舟楫爲鞍馬, 海外南番諸國, 無遠不到. 以生曉解文字, 挈而登舟, 自甲辰(=1604)連歲三往安南國.)

안남은 일본에서 바다로 37000리로서 살마주에서 바다로 나아가 중국의 장주, 광둥을 거쳐서 안남의 흥원현에 도착한다. 흥원현은 그 나라의 수도인 동경(하노이)에서 80리이다.(海路三萬七千里, 由薩摩州海洋, 歷中朝漳州廣東等界, 抵安南興元縣. 縣距其國東京八十里, 乃其國都也.) 국가가 둘로 나뉘어서 하나는 안남국이고 하나는 교지국이 되어 서로 싸워서 승부가 나지 않았다. 문리후 정초라는 자가 환관으로써 용사를 하였는데, 나이가 80인데 거처가 매우 화려하여, 그곳에서는 대부분 초가집인데 오직 문리후 집만 기와를 썼고 기와는 유희를 써서 봉했으며 공작 날개와 비단으로 장막을 했다고 한다.(國內中分爲二, 一安南國一交趾國, 互相爭戰, 未決勝負. 有文理侯鄭勳者, 以宦官用事, 年八十, 居處甚侈. 地多茅蓋而唯文理侯家用瓦, 瓦縫用油灰, 以孔雀羽織綃爲帳.)

하루는 문리후가 그를 불렀는데, 그가 이르자 고관 수십 인이 앉아서 연회를 하였는데, 그가 조선인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후하게 대접을 하였으며 포로가 된 연유를 물으며, “왜가 귀국을 침략한 것을 우리들도 들었다”고 하며 자못 측은한 기색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 권의 책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는 귀국의 이지봉의 시이다. 그대는 고려 사람이니 이지봉을 잘 아는가?” 하여, 자기는 시골 사람이고 어려서 포로가 되었으며 또 이름을 말하지 않고 지봉이라고 하여 지봉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니 모두 오래 동안 탄식하였다고 한다.(文理侯招生, 生至則有高官數十人列坐飲宴, 聞生爲朝鮮人, 皆厚待之. 且饋酒食, 問其被擄

2) 李萬烈, 1971, 「芝峯 李暉光 研究-그의 行蹟과 海外認識을 中心으로-」, 『淑大史論』 제6집. 하우봉, 2006, 「해양사관에서 본 조선시대의 재조명 -동남아시아국가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日本思想』 10, 韓國日本思想史學會.

3) 「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 『芝峯先生集』 권8.

4) 「李暉光行狀」, 『谿谷先生集』 권15. 八月. 如京師. 公凡三聘上國, 冰蘖自厲, 如書籍香藥, 絲毫無所近. 在燕, 與安南, 琉球, 暹羅使相遇, 皆從公丐詩文. 安南使得公詩歸而傳布其國中. 趙完璧者, 我人也, 俘於日本, 隨賈舶到交趾, 交趾人出公詩以示曰, 爾知爾國有李芝峯乎, 此其作也. 完璧後得歸國, 具道其事. 公之文章, 見重於殊俗, 蓋如此. 「趙完璧傳」, 『芝峯先生集』 卷23, 雜著. 岩生成一, 1954, 「安南國渡航朝鮮人趙完璧について」, 『朝鮮學報』 6.

之由曰, 倭奴之侵暴貴國, 俺等亦聞之, 頗有憫惻之色. 仍出一卷書示之曰, 此乃貴國李芝峯詩也. 你是高麗人, 能識李芝峯乎. 生以鄉生, 年少被擄, 又不斥名而稱芝峯, 故不省芝峯爲誰某. 衆歎訝久之.)

2. 혼묘지 소장 안남국 通交 서한 소개

일본은 전국시대를 통일한 오다 노부나가에 이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하통일을 명분으로 내걸고 대외 확장 정책을 전개하였다. 잘 알듯이 도요토미의 조선 침략은 그러한 대외 확장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대외 교역이 활발하였던 나고야, 오사카를 중심으로 성장한 세력으로서 그 당시의 해외 사정을 당시의 수준으로서는 상당한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조선 침략에서 패한 도요토미 정권이나 도요토미 정권을 무너트리고 새로 천하를 장악한 도쿠가와 막부도 도요토미 정권의 대외 확장 정책을 계승하였다.

따라서 도요토미 정권이나 도쿠가와 막부 및 각 지역의 번주, 상인들은 동남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한 흔적인 많은 일본과 동남아 여러 나라 사이에 왕복한 서한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다음은 <표 1>은 「外蕃書翰」에 수록된 안남국과 일본의 왕래 서한이다.⁵⁾

안남국의 서국공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막부에 보낸 서한에서부터 天南國 大尉 端國公이 長崎奉行 등에게 보낸 서한도 있다. 안남국의 서국공은 阮潢으로 처음에는 都元帥를 칭하다가 나중에는 大都統을 칭하고 있다.

대도통이라는 칭호에 대해서는 이수광과 풍극관의 필담에서도 등장하는데, 풍극관은 도통사가 막씨가 중국의 책봉을 받지 못했을 때에 임시로 權署都統使司의 직임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⁶⁾ 막씨를 몰아내고 다시 여씨 왕조를 복구한 鄭氏, 阮氏도 형식적으로만 여씨 왕조를 내세우고 실제로는 북쪽의 정씨와 남쪽의 완씨가 각각 별도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 나뉘었는데, 이 서한에서 서국공이 처음에는 도원수를 칭하다가 대도통을 칭하게 된 것은 그 지역의 실질적 지배자임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안남국 대도통관 瑞國公이 加藤清正에게 보낸 서한이다. 혼묘지 목록에는 「安南國大都統官書」로 되어 있으나 「安南國瑞公書翰」으로 정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겠다.

1) 安南國瑞公書翰 弘定10년(1609, 광해군 1) 5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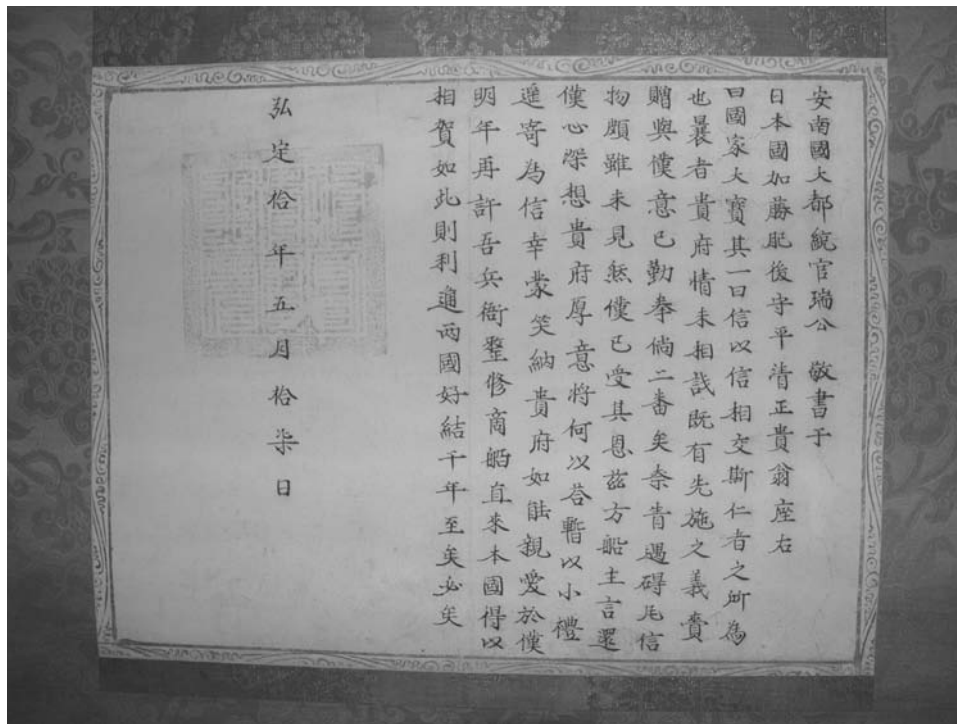
안남국 대도통관 서공이 일본국 가등 비후수 청정 귀옹에게 공경히 씁니다.

이르기를 국가의 대보는 첫째가 신이라고 합니다. 신으로 서로 교제하니 이는 인자가 하는 것입니다. 전에 귀부를 서로 잘 알지 못하는데, 이미 먼저 베푸는 의리가 있어서, 나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부지런하게 2번이나 보내니 어찌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비록 선물은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나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주가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귀부의 후의를 생각하면 장차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우선 조그만 예물로 멀리 보내서 신물로 삼으니, 소납하면 다행이겠습니다. 귀부가 만약 나를 아끼신다면, 명년에 다시 고베에(吾兵衛)를 허락하여, 상선을 수리해서 바로 본국에 오게 하여 서로 축하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가 양국에 통하여 천년 동안 우호를 맺을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1609년 5월 17일.

5) 『외번서한』은 長崎奉行와 御書物奉行로 근무한 곤도 세이사이(近藤正齋, 1771-1829)가 막부의 외교 관계 자료를 편찬하여 작성한 『外蕃通書』의 參考圖錄으로 작성된 것이다. 安南 이외에도 오란다.루손 등에 보내는 渡海朱印狀 33통 등의 外交文書를 그대로 模寫하고 있다. 文政 元年(1818)에 완성하여, 다음 해 2질이 幕府에 献上되어, 紅葉山文庫와 昌平坂學問所에 수장되었다.

6) 問, 貴國有都統使, 是何官職. 答曰, 賤國自古有國以來, 未嘗有都統使司之職, 特以莫氏僭逆, 天朝宥以不死, 權置都統使司. 秩從二品, 以待叛臣耳. 如今要復王封, 廷臣方議定恩賞. (『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 『芝峯先生集』 권8)



安南國大都統官瑞公 敬書于
 日本國加藤肥後守平清正貴翁座右
 曰國家大寶 其一曰信 以信相交 斯仁者之所爲
 也 曩者貴府 情未相識 既有先施之義 賚
 贈與僕 意已勤奉倘二番矣 奈曾遇碍 凡信
 物 頗雖未見 然僕已受其恩 茲方船主言還
 僕心深想貴府厚意 將何以答 暫以小禮
 遙寄爲信 幸蒙笑納 貴府如能親愛於僕
 明年再許吾兵衛整修商船 直來本國 得以
 相賀 如此則利通兩國 好結千年 至矣必矣
 弘定拾年五月拾柒日
 [鎮守將軍之印]

이 서한의 발급자인 大都統官 瑞公은 大都統 瑞國公 阮潢이라고 추정된다. 吾兵衛의 배가 同地에서 귀항함에 즈음하여, 加藤清正으로부터의 來信에 사례하고, 同船에 의탁하여 返信을 보내서, 피차간의 수교와 吾兵衛船이 무역하기 위하여 다시 올 것을 희망하는 것이다. 同船은 이해 정월 11일자 交趾渡航朱印狀을 받은 清正의 배로 吾兵衛는 선장일 것이다.⁷⁾

7) 岩生成一, 1972, 「日本南方諸國往復書翰 補遺」, 『南島史學』 創刊號. 이 논문에서는 본고에 소개하는 두 편의 서한 이외에 暹羅(타이), 甘埔寨(캄보디아), 필리핀 등 일본과 남방이 주고받은 19건의 서한을 소개하고 있다.

2) 安南國瑞公書翰

이 서한도 역시 혼묘지 목록에는 「安南國王勅書」라고 되어 있으나 「安南國瑞公書翰」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제목이 되겠다.

안남국 대도통관이 일본국 加慈(加藤) 肥後寺(肥後守) 청정 각하에게 글로 전합니다. 밝으신 각하께서 거기에 만복하시다니, 나는 기쁘고 축하하는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에 귀국 선주 임우가 본래 급병을 받아서 섬라국 여자에 판매하러 갔다가 배가 그 해안에 오르지 못하고 갑자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그날 나를 알현하였습니다. 듣건대 섬라국왕이 반란을 당하여 허가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선주가 다른 곳으로 가서 임으로 머물러 매매하므로, 나는 진심으로 대하였습니다. 어제 내가 들으니, 귀부에 귀물이 있어 가지고 와서 나에게 증여했습니다. 비록 물건은 보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미 그 후해를 알았습니다. 이에 선주 임우가 순풍에 닳을 풀어서, 나는 조그마한 예물로 멀리 신물을 삼으니, 귀부가 능히 나에게 상애하여 선주로 하여금 명년에 다시 상선을 수리하여 우리나라에 와서 판매하여 양국의 화재를 통하여 천년의 좋은 의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에 씁니다.

1610년 5월 24일



安南國大都統官 書達于

日本國加慈肥後寺清正閣下 知炤閣下 起居萬福 我不勝
欣賀之至 茲有貴國船主林右 本受給憑 往販暹羅國余慈
帆不登彼岸 忽到我邦日 方庭謁我 素聞暹羅國王 當擾亂
不忍許 船主他往 任留買賣 我待以實情 昨日我聞貴府有貴
物 賚贈與我 雖物不見來 然我已知其厚惠 茲因船主林右 順
風解纜 我有小禮 遙寄爲信 貴府如能相愛於我上 許船主明
年再修商舶 來販我邦 以通兩國之貨財 以結千年之好義 茲書
弘定十一年五月二十四日

[鎮守將軍之印]

대도통관은 앞 서한의 경우와 같은 阮演일 것이다. 선주 林佑의 배가 暹羅에 무역하러 갔지만, 그 지역에서 소요가 있어서 상륙이 불가능하게 되어, 바꾸어 交趾에 기항하여 무역을 했지만, 그 귀항에 즈음여, 清正에게 보낸 서한 편에 林佑의 배가 다시 와서 무역을 할 것을 희망한 것이다. 이보다 먼저 清正은 전년 정월 11월 자 暹羅渡航朱印狀을 받았기 때문에, 이 朱印船이 暹羅에 도항하여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경과하여 이즈음에 交趾에 기항한 것은 아닐까 생각되고, 林佑는 동선의 선장일 것이다.⁸⁾

3. 안남국 서한을 통해 본 동아시아 문서 양식

여기에서는 이상 안남국 서한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외교 문서 양식의 변화와 발달의 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통 전근대 동아시아의 외교 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대교린질서가 정착이 되었고, 그에 따른 중국 중심의 의제적 상하질서가 문서에 반영되었다. 조선에서 중국에 보내는 表文, 箋文, 咨文 등은 그러한 의제적 상하질서 속에서 문서의 양식 즉 擡頭, 頭辭, 尾辭, 字行, 字體, 종이, 봉투, 인장 등 여러 면에서 규제되고 있었다.

중국 이외의 조선이나 일본, 안남, 유구 등은 서로 교린적 질서 속에서 대등한 문서를 주고받았다. 조선과 일본이 주고받은 국서와 서계가 그것이다. 위에 살펴본 완씨의 문서는 비후국 번주인 가등에게 보낸 것으로 완씨의 형식 상 황제인 여 왕조를 염두에 둔다면 완씨와 가등은 대등한 관계 즉 서계 문서 양식을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국공이 가등에게 보낸 이 두 통의 문서는 擡頭나 字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아직 완전한 외교문서식이 정착되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인장은 「鎮守將軍之印」을 쓰고 서압을 한 듯한 묵인을 찍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숙종 대에 제주 사람으로 안남국에 표류했다가 안남국의 국왕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귀국한 김태황의 사례에서 조선에 보낸 안남국의 문서의 편린을 엿볼 수가 있다.

제주 사람 김태황은 1687년(숙종 13)에 진상마를 영솔하고 서울에 가다가 추자도 앞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31일만에 安南國 會安 지방에 이르렀는데, 안남국왕이 임시로 건물을 지어서 접대하고 錢米를 주어서 餬口하게 하였다. 마침 다음해에 浙江의 상인 朱漢源 등 28명을 만나서 7월에 그 배에 실려 제주로 돌아왔다.⁹⁾

이때 안남국에서 보낸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 공문은 나라의 邊臣인 明德侯 某가 작성한 것으로, 印章은 쓰지 않고 단지 圖書만을 썼으며, 또한 浙江 商船은 寧波府의 票文을 가지고 있었다. 清人 行商들은 모두 票文이라는 公文을 가진다고 인식하였다.

조선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선가와 米價·糧資를 계산하여 銀으로 주고, 그대로 譯官에게 燕京으로 거느리고 들어가라고 명하였는데, 연경에 도착하니 胡皇이 꼭 押致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놓아주고, 이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표류하여 온 자를 있으면, 배가 있으면 바다를 경유하여 놓아 보내고, 배가 없으면 鳳凰城에 領付하도록 하였다.¹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안남국의 공문에는 인장은 없고 도서만 있다는 것이고 그 공문은 변신인 명덕후 오 아무개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명덕후 오 아무개는 완씨 정권 하의 또 다른 지방 정권으로 생각된다.

8) 岩生成一, 1972, 「앞논문」.

9) 『숙종실록』 15년 2월 13일조.

맺음말

이상 安南國 瑞國公이 加藤清正에게 보낸 통상 요구 문서에 대한 이해를 계기로 하여, 17세기 초반의 동아시아의 상황과 두 문서의 내용 및 성격, 또한 동아시아에서의 외교문서의 형성과 발달에 대한 단서적인 이해를 모색하였다. 이 문서의 「鎮守將軍之印」이라는 인장이라든가 墨印 署押 및 문서의 書體, 종이, 外廓의 문양 등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서를 통하여 국가 간의 공식적인 문서가 정립되기 이전에 동아시아를 무대로 통상을 필요로 하였던 일본, 유구, 중국 동부 연안, 동남아 등지의 여러 세력이 안정적으로 통상의 이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擬制로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생각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여기에 소개하는 일본과 동남아 여러 나라의 서한을 통하여, 17세기 초반에 동아시아 해를 중심으로 물자의 교역이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先是, 全羅道觀察使權是經狀言: 濟州人金泰瑛, 於丁卯九月, 領牧使李尚진(香+全)所進馬, 行船至楸子島前, 爲風所漂, 三十一日方到安南國會安地, 安南國王假公廨而待之, 賜錢米以餬口, 適遇浙江商船, 以戊辰七月載歸本州, 所齎安南國公文, 是其國邊臣明德侯吳所成, 而不用印, 只用圖書, 浙江商船則持寧波府票文(清人行商, 皆持票文, 即公文也。)矣. 泰瑛之得載也, 約與米六百包, 而泰瑛不能償其言, 自朝家宜有以濟之.” 上下其事于廟堂. 陸來善. 金德遠以爲: “此事殊可疑, 然既約與米, 則不可不與, 而清人漂到我界, 輒皆從陸領還, 今不領還, 則恐後日爲清人所覺也. 須許從陸, 而且戒牧使, 毋使自逃. 上可之. 是夏自濟州押商人朱漢源等二十八口, 至都下, 計其船直. 米價. 糧資, 以銀與之. 仍命譯官, 領入燕京. 胡皇曰: ‘何必押致也?’ 遂放遣之. 仍使我國, 凡遇漂到者, 有船則從海放遣, 無船則領付鳳城, 以爲式.

< 표 1 > 「外蕃書翰」 소수 안남국과의 왕래 서한 목록

번호	제목	시기	내용	원본 소장처
1	安南國都元帥瑞國公上書	弘定 2년 (1601) 5월 5일	安南國天下統兵都元帥瑞國公 → 家康公. 白濱顯貴가 통상으로 順化(후에)에 왔다가 파선. 상쟁, 동경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들음. 顯貴 귀국에 軍器를 보냄.	相國寺書翰屏風
2	安南國大都統瑞國工阮某上書	弘定 4년 (1603) 5월 19일	安南國大都統瑞國公阮 → 日本國內宰執原王殿下.	동상
3	安南國大都統瑞國公上書	弘定 6년 (1605) 5월 6일	부 別幅. 安南國大都統瑞國公 → 日本國源王殿下. 銃 2柄, 奇藍香 1塊, 白絹 10疋. 密香 1瓶, 香蠟 1瓶, 火香 1000株	동상
4	天南國大尉端國公曉示客商書	弘定 7년 (1606) 4월 15일	天南國欽差雄義營副都將行下順化廣南等處太尉端國公爲曉示日本國客商事. 日本국 상선 3척이 와서 판매. 國중에 行행하며 복건 상인의 재화를 노략질하고 부녀를 겁간. 말을 듣지 않아 兵威를 보임. 교역하도록. 「總鎮將軍之印」	동상
5	天南國大尉端國公曉示客商書	弘定 7년 (1606) 5월 8일	위와 같음. 日本상인은 다른 나라에 가서 판매를 하려는 것으로 풍세가 불순하여 우리나라에 의지. 貼屏封 5雙을 바쳐서, 大海船 1척과 奉命旗 1面 및 日本국왕 방물(沈香 20근, 白熟絹 5필)을 주니 순풍을 기다려 귀국할 것.	동상
6	安南國大都統瑞國公奉復書	弘定 7년 (1606) 5월 13일	(부 별폭) 安南國大都統瑞國公 → 日本國本主一位源家康王殿下. 帛熟絹 10필, 奇檻香 1괴, 火香 1000주, 香蠟 1佐, 台香 5정	동상
7	安南國華郡公呈長崎奉行書	弘定 20년 (1619) 4월 17일	安南國布政都堂右府華郡公 → 日本國奉行大人麾下. 무오년(1618)에 귀국선이 내항하여 무역, 태풍으로 본지에 옴. 九郎兵 등의 호소. 花縐 4필, 白絹 1필.	출처 미상
8	安南國廣南阮氏與長崎木村宗太郎書	弘定 20년 (1619) 4월 22일	安南國殿下兼廣南等處爲立書事. 우리 완가가 나라를 세운 이래 인의를 베풀. 日本국 선주 木宗太郎이 와서 귀족 阮太郎이라는 이름을 하사.	長崎木村氏 소장
9	安南國清都王令旨	永祚 6년 (1624) 5월 23일	永祚(1619-1629). 元帥統國政清都王令旨. 本國義客徐右衛門이 안남국에서 통상을 할 것임.	출소 미상
10	安南國王呈長崎奉行書	正和 9년 (1688) 6월	正和(1680-1705) 安南國國王 → 日本國山長崎鎮守王閣下.	長崎立山府 소장
11	安南國王呈長崎奉行書	동상	安南國國王 → 日本國 _{山長} 崎宮保文官閣下.	동상
12	安南國得祿侯與長崎通詞書	동상		동상
13	安南國人吳秉綽與長崎通詞書	동상	(부 副啓) 안남의 香牙皮糖과 일본의 銅料諸物을 무역하자.	동상
14	(安南國王府內監兼都察監總太監掌監事派郡公示)	德隆 6년 (1634) 6월	德隆(1629-1635). 安南國王府內監兼都察監總太監掌監事派郡公 → (示) 日本國義商角倉艚長助次右衛門 등. 거래하러 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수년 동안 체류, 귀국, 통상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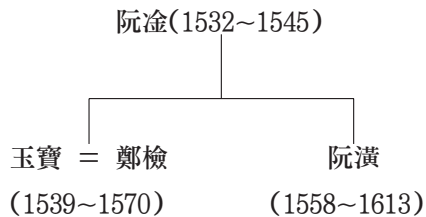
〈安南國 王代〉

黎 王朝

1. 展威 暁(太祖, 여리, 1428~1433)
2. 타이 동(太宗, 1434~1442)
-(막씨의 찬탈)
13. 아인 동(英宗, 1556~1573)
14. 테 동(世宗, 1573~1599)
15. 낀 동(敬宗, 1599~1619)
- 16, 18. 턴 동(神宗, 1619~1643, 1649~1662)
17. 쩌 동(眞宗, 1643~1649)

莫氏 王朝

1. 嚴 雁 搔(莫登庸, 1527~1529)
2. 막 당 조아인(莫登瀛, 1530~1540)
3. 막 폭 하이(莫福海, 1541~1546)
4. 막 폭 응우옌(莫福源, 1547~1561)
5. 막 머우 헝(莫茂洽, 1562~1592)



쭈어 쩌(鄭主)

1. 宅 晦織(鄭檢, 1539~1570)
2. 쩌 똥(鄭松, 1570~1623)
3. 쩌 짱(鄭柑, 1623~1657)
4. 쩌 막(鄭柞, 1657~1682)
5. 쩌 깐(鄭根, 1682~1709)....

쭈어 응우옌(阮主)

1. 誓醉榛 裕肖(阮潢, 1558~1612)
2. 응우옌 폭 응우옌(阮福源, 1613~1634)
3. 응우옌 폭 란(阮福瀾, 1635~1648)
4. 응우옌 폭 떤(阮福瀨, 1648~1687)
5. 응우옌 폭 떤(阮福湊, 1687~1691)....

On the Diplomatic Documents of Vietnamese Later Le Dynasty in Honmyoji, Japan

Kim Hyun-Young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reasure House of Honmyoji temple in Kumamoto, Japan have two documents of Vietnamese Later Le Dynasty, which were sent by Vietnamese local lord Seo of Le dynasty to local lord Kato Kiyomasa. Honmyoji was the temple for the Kato family.

So the Honmyoji temple has many remains and documents which were related to Kato and the temple. In them, there were also many Korea-related remains, because Kato was the van of Toyotomi's invasion on Joseon Korea.

The two documents were the letters which were sent by local lord Seo of Vietnamese Le dynasty to Kato, local lord of Higo, Japan. One was sent in May, 1609 and the other was sent in May, 1610. In the first letter, local lord Seo want to trade the commodities by sending some presents through the ship owner.

In the second letter, he also want to trade the commodities. But in this letter, there were some more informations on the trade between Japan and south-east Asia. The ship owner Hayashi has sailed to Yoja, Tailand, but failed to embark, because Tailand was confused for a time.

I can not confirm whether these letters are genuine or not. It was the Le dynasty at this time, but the Vietnam's political situation was also very confused. In 1572, Mac userped from the Le, and the powers Nguen and Trin control the each part of Vietnam.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tamp and style of handwriting for confirming the letter's authenticity. Basically I think that the letters were made fictitiously for the merit of trade between Japan, Okinawa, the east seashore of China and south-east Asian regions like as Vietnam, Phillipine, and Thailand etc.

In spite of only two plain materials, we can make a narrow view on the trading of commodities arrounding the East Asia Sea in 17th century.